

현대차 '포니' 45년만에 전기차로 다시 태어난다

정희선 부회장, '포니' 모터쇼 발표

콘셉트카 45, '포니쿠페' 재해석 전기 레이싱카 콘셉트도 첫 공개

정희선 현대자동차그룹 총괄수석부회장이 세계 최대 자동차 전시회인 독일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 참석한다. 현대차는 이번 모터쇼를 통해 내년 선보이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 기반 전기차의 콘셉트카인 '45'와 전기 레이싱카를 최초로 공개한다.

10일 현대차에 따르면 정희선 수석부회장은 전용기 편으로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했으며 이날 미디어공개 행사를 시작으로 22일까지 열리는 모터쇼를 참관할 예정이다.

정 수석부회장이 세계적 규모의 모터쇼에 공개적으로 참석하는 것은 지난해 1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2018 LA 오토쇼' 이후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 수석부회장은 모터쇼 기간



정희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

에 미래차를 주제로 열리는 콘퍼런스 등에서 공식적으로 연설하지 않고 참관만 할 예정이다.

이번 모터쇼에서 현대차만 전시관을 운영하며 기아차는 참가하지 않는다.

45는 현대차의 첫 독자 모델 포니를 탄생시킨 콘셉트카 '포니 쿠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콘셉트카다. 포니 쿠페는 이탈리아의 디자인 거장 조르제토 주지아로가 디자인했다.

또한 포니 쿠페를 재해석한 45는 단



현대자동차의 '2019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전시 공간과 EV 콘셉트카 45의 모습. /현대자동차

순히 과거 모델의 회귀를 넘어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의 진입을 의미한다.

차명 45는 45년 전 시작된 도전 정신인 현재 현대자동차를 끊임없이 진보하게 만드는 원동력으로 이어져 내려오며 고객 중심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진화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미래 청사진으로서 기능한다는 의미를 담아 결정됐다.

45는 1970년대 항공기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은 모노코크 방식의 바디가 공기 역학과 경량화를 구현하고, 실루

엣의 직선적이고 힘찬 라인이 전체적으로 다이아몬드 형태의 인상을 주며 45만의 아이코닉한 이미지를 만드는 게 특징이다.

45의 내장 디자인은 자동차의 역할이 '이동 수단'을 넘어 '삶의 공간'으로 변화해감에 따라 고객들이 자신의 라이프스타일과 니즈에 따라 자동차 실내를 아늑한 생활 공간처럼 구성할 수 있다.

실내 공간은 '스케이트보드'라고 불리는 바닥을 평평하게 만든 공간 안에

거실에 가구를 놓은 듯한 느낌으로 디자인됐다. 또한 바닥면에 배터리를 장착해 내연기관 자동차와 다르게 실내 바닥을 튀어나온 부분없이 평평하게 구현했다.

45는 나무와 패브릭, 가죽 소재를 크래쉬패드, 도어, 시트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각적으로 집과 같은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며, 슬림 시트로 더욱 넓어진 공간이 안락함을 선사하고 1열 시트가 돌아가는 스위블 시트를 통해 승차차 시 편의성을 더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밖에도 현대차는 이번 모터쇼에서 독일 알체나우 모터스포츠 법인이 디자인과 개발을 주도한 전기 레이싱카도 공개한다. 독일 법인은 앞서 경주용 차량인 i20 R5와 i30N TCR, 벨로스터 N TCR을 개발한 바 있다.

아울러 현대차는 신형 i10과 i10N 라인 등도 세계 최초로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프랑크푸르트 모터쇼는 상하이, 디트로이트와 함께 세계 3대 모터쇼로 평가받고 있다.

/정현우 기자 yw964@metroseoul.co.kr



지난달 21일 영국 블레넬공에서 열린 코란도 미디어 시승행사의 모습. /쌍용자동차

쌍용차 '풀체인지 코란도' 유럽시장 공략

영국·벨기에·스페인 등서 판매 4분기부터 가솔린모델도 선택

쌍용자동차가 영국, 벨기에, 스페인 등 유럽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코란도 현지 판매에 돌입하며 하반기 글로벌 판매 물량 확대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쌍용자동차는 지난달 20일부터 22일까지 영국 옥스포드셔 우드스톡에 있는 블레넬공에서 공식적인 코란도 디젤 모델의 판매 시작을 알리는 미디어 론칭 행사 및 시승행사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쌍용자동차에 따르면 행사에 참석한 현지 언론 및 대리점 관계자들은 8년 만에 풀체인지 모델로 돌아온 코란도의 디자인,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다양한 편의사양, 넉넉한 실내공간 및 뛰어난 공간활용성 등 한층 강화된 코란도의 상품성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쌍용자동차는 영국을 시작으로 이달부터 벨기에, 스페인, 터키 등 유럽시장에서 론칭 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현지 판매를 시작하며 하반기 글로벌 판매 물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현우 기자

'LG 식기세척기' 호주서 최고제품 선정

2종 각각 83점, 81점으로 1·2위

LG전자가 자사의 식기세척기가 호주에서 고성능과 고효율을 인정받으며 최고의 제품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호주 유력 소비자잡지 초이스가 실시한 식기세척기 평가에서 LG전자 식기세척기 2종이 각각 83점(모델명: XD3A25MB), 81점(모델명: XD3A15NS)을 받으며 1~2위를 차지했다. 초이스는 두 제품 모두 추천제품에도 선정했다.

초이스의 소비자평가는 전문가들이



LG전자 식기세척기 XD3A25MB. /LG전자

엄격한 제품 테스트를 통해 평가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신뢰가 높다.

초이스 평가단은 테스트한 58개 모델 가운데 LG전자 식기세척기가 세척 및 건조 성능, 에너지 효율성 등에서 탁월하다고 평가했다.

/구서윤 기자

삼성전자, '건조기 시장' LG전자 추격나서

비수기 8월 실적, 1월보다 3배 증가 건조기 반납 프로모션 등 진행 성과 LG전자, 기존모델 단종 개선 출시

의류 건조기 시장 점유율 1위인 LG전자에 맞서 삼성전자가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며 점유율 확장을 위한 맹추격을 하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달 건조기 판매 실적은 1월과 비교해 약 3배 증가했다. 비수기인 여름철임에도 불구하고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소비자의 건조기에 대한 관심 증가와 경쟁사의 논란으로 인한 반사 이익 효과가 겹친 영향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는 소비자가 기존 쓰던 건조기를 반납하면 현금으로 돌려주는 프로모션도 진행 중이다. 제조사에 상관없이 용량에 따라 10만~30만원을 지급한다. 삼성디지털프라자 관계자는 "요즘 건조기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며 "할인폭이 크지는 않은데도 기존 쓰던 LG제품에서 삼성제품으로 교체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

LG전자는 최근 먼지가 쌓이는 문제가 건조기 성능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소비자 의견을 반영해 기존 모델을



삼성전자 모델이 삼성 디지털프라자 강남본점에서 건조기를 소개하고 있다.

단종하고 문제를 개선한 모델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개선된 제품을 통해 먼지 논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기존 자동세척 콘덴서 제품에 대해선 10년간 무상 보증을 실시한다. 송대현 LG전자 사장은 최근 발생한 건조기 사태와 관련해 "무상수리 서비스 등 후속 조치를 통해 고객 감동으로 돌려주겠다"고 말한 바 있다.

건조기 논란에 대한 소비자 반응은 제각각이다. 건조기 기술이 더 발전하면 구매하겠다는 소비자도 생기는 반면 일부 제품에만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매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도 나온다.

하이마트 관계자는 "몇몇 소비자가

LG건조기에 대해 좋지 않은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걸 들으면 제품이 나빠보이겠지만 이미 이전에 팔린 LG건조기만 몇백만대"라며 "만족하며 쓰는 소비자가 더 많고 그들은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생각하며 크게 반응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LG건조기에 대한 구매 문의가 많다"고 덧붙였다.

전체적인 건조기 시장은 꾸준히 커지고 있다. 건조기 시장은 지난해 150만대에서 올해 200만대로 확대될 전망이다. 대형 건조기는 삼성·LG가 중·소형건조기 시장에서는 위닉스가 인기다.

/구서윤기자 yuni2514@

LG 씽큐, 독일 IFA 9개 매체서 최고상

LG전자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IFA 2019'에서 'LG V50S 씽큐(해외명 LG G8X 씽큐)'와 전용 액세서리 'LG 듀얼 스크린'이 다수의 해외 유력 매체들로부터 '최고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두 제품은 전시회 폐막 하루 전인 10

일을 기준으로 총 9개 매체로부터 최고상을 받았다.

美 유력 IT매체 안드로이드 헤드라인은 "LG전자는 우리가 본 가장 실용적인 방식으로 폴더블폰을 선보였다"고 말하며 LG V50S 씽큐를 최고 제품으로 선정했다.

미국의 또 다른 IT전문매체 톰스가 이드는 LG V50S 씽큐를 최고 제품으로 선정하며 "듀얼 스크린은 화면 두 개를 활용하는 혁신적이면서도 실용적인 방식으로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 제품을 직접 체험한 외신들을 중심으로 LG V50S 씽큐와 LG 듀얼 스크린의 뛰어난 실용성에 대한 호평도 이어졌다.

/구서윤 기자